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남성 원귀의 형상

- 여성 원귀 설화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변 혜 원 *

I. 서론

한국인의 종교적 세계관이 상당히 중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포괄 범위 역시 상당히 넓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듯하다. 민간신앙의 바탕 위에 불교, 도교, 유교와 같은 외래 종교들이 유입되고, 그 각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과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경쟁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쳐 온 과정이 우리 민족의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지극히 넓은 영역의 다양한 사고들을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종교적 세계관의 가장 직접적인 반영 중 하나인 ‘귀신’이라는 존재의 개념 또한 극히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가 1996년 12월 간행한 연구결과보고서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구조적 연구』¹⁾에서는 귀신을 “협의로 ‘인간 死者의 靈’, 광의로 ‘천지만물의 靈(天鬼, 山川귀신) 혹은 최고신인 천을 제외한 모든 신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광의의 정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귀신관은 ‘초자연적인 모든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것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4학년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구조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 1996.

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아 있을 때 혼(魂)과 백(魄), 죽어서는 귀(鬼)와 신(神)으로 나누어 인간의 생명과 자손의 화복을 관장할 수 있다는 윤리적 귀신관을 전개한 유교, 귀신의 작용을 이기(理氣)의 원리로 설명하여 신비적 성격을 제거한 사색적 귀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²⁾ 악귀(惡鬼)와 선귀(善鬼)로 귀신을 구분하며 지옥의 옥졸, 나찰, 야차 등에서부터 천부의 천제까지도 모두 귀신의 범주로 포함하는 불교,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신은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하급신이라고 보았던 도교 등, 각기 독자적인 시각을 지닌 종교들의 오랜 혼재(混在)는, 한국 문화가 신령스런 조상신으로부터 인간을 해치는 악귀,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괴물까지를 모두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게 된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귀신(鬼神)’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아마도 풀어헤친 머리에 선혈이 낭자한, 처참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자신의 한 맷힌 사연을 풀어놓는 여귀(女鬼)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한 맷힌 여귀, 즉 여성 원귀(冤鬼)가 가지는 막강한 문화적 코드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공포의 심상³⁾으로 고정해 놓았고,

2) 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귀신론에 대하여서는 박성규, 「주자 귀신론에서 ‘괴이현상(怪)’의 문제」, 『철학연구』 제61집, 철학연구회, 2003을 참조할 것. 박성규(2003)에 따르면 주자는 귀신을 음양 및 조화의 두 측면으로 파악하여, 기가 펼쳐지고 구부러지며 오고 가는 작용 자체를 귀신으로 보았다. 즉 “귀신은 조화의 자취(鬼神者造化之迹也)”이며 “귀신은 두 기의 양능(鬼神者, 二氣之良能也)”이라는 것이다.

3) ‘공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는 문화적 매체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큰 매체인 영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점은 확연해진다. 한국에서 제작되고 개봉되는 대부분의 공포영화들은 그 공포의 핵심 대상으로 대부분 ‘여성 귀신’을 내세운다. 권철휘 감독의 1967년작 『월하의 공동묘지』와 같은 고전뿐 아니라, 교육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여고괴담』(박기형 감독, 1998)이나 헐리우드에서까지 리메이크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관심을 받았던 『장화, 홍련』(김지운 감독, 2003) 등 최근의 영화들도 여성 원귀를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어, 여름이 되면 연예계에는 흔히 ‘호러 퀸(horror queen: 공포영화에 출연하여 공포를 제공 및 체험하는 역할을 맡는 여배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공포의 핵심 소재로서 여귀가 갖는 비중은, 미국의 공포 영화가 살인미를 내세우고, 일본의 공포 영화가 축축하게

또한 동시에 ‘귀신’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여귀 이미지들이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배태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귀 이미지, 특히 민간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여귀들로부터 윤곽을 따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문화가 보이는 이러한 여귀에의 관심 편중은 전통적 귀신의 존재를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온 연구들이 보이는 방향성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문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귀신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여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⁴⁾ 현재 국문학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 분야의 연구는 「아랑각전설」이나 「장화홍련전」과 같은 여성 원귀 이야기에 대한 문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분석이나 이 이야기들의 매체를 달리한 재창작(가장 대표적으로는 영화화)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⁵⁾

그러나 한국인의 귀신관에 대한 앞선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여성 원귀들은 한국 전통 귀신의 범주 내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실제로 귀

젖은 기괴한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것과 대비해 볼 때 분명히 한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4) 이러한 경향은 이들 연구가 산출되던 당시의 학계의 흐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에 큰 무게를 두기 꺼려오던 우리나라의 학문적 전통이 관여하여 귀신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가, 1980년대 이후 학문계의 커다란 화두인 여성주의의 영향에 의해 여성 원귀들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 결과 여성 원귀에 대한 연구가 여타 귀신이야기들에 비해 많이 수행된 것이다(이상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조현설 교수님과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5) 설화문학에 나타나는 여성 원귀에 대하여 국문학적 연구를 수행한 예로는 조현설(2003), 최기숙(2006), 백문임(2001), 김소영(2003) 등을 들 수 있다. 조현설(2003)과 최기숙(2006)은 여성 원귀의 형상 및 그 사회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백문임(2001)과 김소영(2003)은 여성 원귀들이 현대에 들어와 타매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한 예에 대하여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의 대상을 귀신의 분류가 아니라 특정 시대 및 텍스트로 한정한 연구(정환국(2007), 윤혜신(2007) 등)나 귀신의 성별과 그 출현 시대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광범한 자료를 통해 귀신, 그 중에서도 특히 원귀담을 분석한 사례(강진옥(2002), 안병국의 『귀신설화연구』)도 국문학계에서 귀신을 심도 있게 다룬 선행 연구이다. 국문학계의 영역 외에서는 귀신의 사회적 의의 및 전통적 귀신론에 대한 해석 등을 제공한다(김종주(2003), 박성규(2003)).

신이 나타난 이야기 및 설화자료들을 보면,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양쪽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의 귀신들이 등장한다. 일정한 형체도 인과도 없이 나쁜 장난을 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e.g. 『부계기문』 유자신 이야기), 인간이라 생각할 수 없는 흥측한 모습을 가진 괴물 같은 귀신도 있고(e.g. 『제산담수』 신막정 집 이야기), 죽은 조상이 자손에게 나타나기도(e.g. 『어우야담』 황대 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여러 귀신들 가운데에는 재론의 여지없이 다양한 남성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기록문학에 자료가 남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 수나 유형을 따져 보면 남성 귀신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여성 귀신이 나타나는 이야기에 비해 결코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상(象) 및 그 문학적 형상화, 그리고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문화적 의의를 적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여성 원귀에 주로 그 초점을 맞추어져 있던 귀신 설화 연구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귀신들에게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하여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남성 귀신들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록문학을 중심으로 한 설화 자료에서 보이는 남성 귀신, 그 중에서도 남성 원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모습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성 원귀의 출현 및 신원, 해원 방식을 분석한 후, 여성 원귀 출현담과의 비교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양성 원귀들의 형상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지를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당시의 사회구조적 틀이 이들 이야기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지향점이다.⁶⁾

6)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에 앞서, 이 논문의 주 연구 대상인 ‘원귀’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술하였듯 설화 내부에는 여러 가지 독자적인 종교의 귀신관이 우리 민족 고유의 귀신관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 하지만, 이 중 ‘원귀’는 협의의 귀신, 즉 사령(死靈)의 일부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원귀’의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원(冤)’이라는 글자에 주목하여, 원귀의 범주를 출현하는 귀신 개개의 경우가 느끼는 원통함의 무게나 그것을 해원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의 명확성으로 규정하기로

II. 설화 자료에서 살펴 본 남성 원귀들의 형상

남성 원귀들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유사』에 억울하게 죽은 고구려 시대 점쟁이 추남(秋南)의 이야기가 실린 이래, 남성 원귀들의 이야기는 『고금소총(古今笑叢)』, 『교수잡사(攬睡雜史)』, 『학산한언(鶴山閑言)』, 『동쾌락송(東稗洛誦)』, 『용재총화(?齋叢話)』, 『동소만록(桐巢漫錄)』 등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귀 자신이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억울함을 푸는 경우와, 제3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원통함을 해소하는 경우가 그것이다.⁷⁾ 이 장(章)에서는 기록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남성 원귀담을 크게 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그 각각에 속하는 예를 제시하여 남성 원귀들을 형상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전자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행동형(行動型), 후자에 속하는 이야기를 신원형(伸冤型)으로 이름 붙이도록 한다.

원귀가 자신이 직접 행동을 취하는 행동형(行動型) 이야기는 직접적인 복수담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귀는 자신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

하였다. 즉, 이 글에서 ‘원귀’란 ‘죽은 자로 하여금 명계로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게 한 사건에 대하여 귀신 자신이 원통함 혹은 분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원(解冤)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신원, 보복, 암시 등)을 보이는 사령(死靈)’을 의미한다.

7) 사람이 원통함을 가지고 죽었을 때 따로 귀신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천재지변이나 괴이한 자연현상 등의 정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도 넓은 의미로는 ‘원귀의 조화’로 보아 원귀 이야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들은 원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원귀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판단,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험담은 제외하고 원귀가 직접 등장하는 이야기들만을 다루기로 한다. 원귀가 현몽(現夢)하는 경우도 원귀가 직접 등장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도 기록이나 구술의 버전에 따라 출현 디테일을 달리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뿐더러, 귀신이 꿈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경우에도 그것을 단순히 꿈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징표들이 이야기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그 자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며, 때로는 원수(怨讐)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환생하여 원수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갑자(甲子, 1864: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4년 후) 봄에 성민(城民)의 꿈에 유혁연(1616~1680: 경신대출척 때 사사(賜死)당함)이 군복을 입고 칼을 뽑아들고 나타나, “내 오늘 김석주(金錫胄, 1634~1684: 경신대출척 사건 주모자)에게 복수한다.”라고 말했다. 꿈을 깨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날 김석주가 사망했다는 것이었다.⁸⁾

이 이야기는 짧지만 직접적으로 원한을 해소하는 원귀 이야기에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즉,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원귀가 징험을 보이고 원한을 가진 당사자에게 보복을 결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한을 풀 당사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예고’라는 징험을 보였다는 점이 독특하기는 하나, 원귀의 특정한 징후가 있은 후 남을 억울하게 죽게 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사재척언(思齋撫言)』에 실려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삼부자(三父子)의 사정을 술에 취해 소홀히 처리하여 그들을 죽게 한 나머지 원인 모르게 객사한 연안(延安) 부사 안창수(安彰壽)의 이야기⁹⁾도 이와 같은 맥락의 복수담이라 할 수 있다. 또, 원한이 내세에까지 이어져, 원한의 대상이 새로 태어난 연후에도 전생의 원한을 유지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한다.¹⁰⁾ 이외에도, 원귀의 원한이 귀신에게 원통함을 품게 한 그 당사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화를 미치는 경우

8) 『동소만록』에 실린 이야기. 김현룡 저, 『한국문헌설화』 제5책 346면에 번역하여 실은 내용을 인용.

9) 위 책, p. 343에 안창수 이야기가 실려 있다.

10) 『계서야담』에는 전생의 원한으로 재상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를 병들게 한 귀졸(鬼卒)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귀졸이 재상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삼경에 병인의 집으로 찾아오나, 점쟁이의 예언에 따라 병인의 결을 지키고 있던 오성(鰲城)이 귀졸에게서 재상의 아들을 보호하여, 귀졸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 대신 점쟁이에게 보복을 하게 된다. 이희준 편찬, 유희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pp. 442-225.

도 있는데,¹¹⁾ 이것은 조상이 덕을 쌓으면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고, 조상이 악업을 쌓으면 후손도 그 죄를 받는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고방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귀가 자신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으로 원한을 풀는 이야기들에서는 전생과 내세를 연결하는 불교적인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 보장왕이 부당하게 처형한 점쟁이가 죽어 김유신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¹²⁾와 수나라 양제(煬帝)가 고구려 병사에게 욕을 당하자 그의 우상(右相)이 고구려의 대신으로 태어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고 죽어 연개소문(淵蓋蘇文)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전하는데, 나라의 흥하고 성함, 위인과 악인의 출현에 개연성을 부여하여 실감 나는 이야기로 꾸민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동 소만록』에는 시정 상인의 신분으로 장복(章服: 高官의 冠帶)을 입었다 하여 치죄 심문당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새신랑이 자신을 죽인 도현(都憲: 大司憲)인 허적(1610~1680)의 아들로 태어나 그의 가문 전체를 멸망시킨 이야기가 전한다.¹³⁾ 원한을 품은 상대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이러한 모티프는 사람의 원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천예록』에는 무인이 큰 뱀을 죽인 후 그 뱀이 아들로 태어나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¹⁴⁾ 자신에게 원한을 지닌 것이 가장 사랑하여 마지않는 자식으로 태어나 해를 입힌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무친 원한이 초래할 수 있는 잔혹한 복수의 극한을 보여준다.

11) 이러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까지도 구전되곤 하는 ‘두고도 거지’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자인데, 그의 할아버지에게 무고하게 죽은 원귀의 위협 때문에 열여섯 되는 해 홀로 집을 떠나 삼 년을 신분을 감춘 채 살아가야 하는 시련을 겪는다. 삼 년째 되는 밤 원귀가 나타나 그를 해치려 하니, 왕자와 함께 밤을 보내던 처녀가 원귀를 물리쳐 주어 왕자는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구전 설화 자료에도 찾아볼 수 있으며, 『동폐락송』 등의 문헌에도 실려 있다.

12) 안병국, 앞의 책, pp. 71-72.

13)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5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 343.

14) 임방 저, 정환국 역, 『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p. 283-285.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살아생전 원통한 일을 당해도 신분차 등의 제약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원귀가 되어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약으로부터 풀려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한다는 것이다. 신하가 왕을 죽이기도 하고, 점쟁이가 왕을 위협하기도 하며, 평민이 양반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이는 ‘귀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속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인 한편, 엄격한 신분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정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소망 및 부조리한 사회 질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남성 원귀담의 또 다른 분류인 신원형(伸冤型)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 원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제3자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야기는 신원형 원귀담은 여성 원귀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남성 원귀담에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다양성의 정도에서도 여성 원귀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아랑각전설」로 대표되는 신원형 여성 원귀담과 그 전체적인 흐름 및 구체적인 화소에서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이야기가 남성 원귀담에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남성 원귀의 신원형 이야기 중에서 가장 널리 기록되고 이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관북의 한 무인이 과거 보려 상경하다가 날이 저물어 한 큰 집에 들어 유숙을 요청했다. 대문에서 한참 동안 주인을 부르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 “집에 남자가 없어 손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고 말하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인은 곧 사랑에 아무 데서나 자고 가겠다고 간청하니,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무인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밤중에 15, 6세가량의 소년이 초립을 쓰고 나타나 절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저는 원통하게 죽었는데, 신원할 길이 없다가 마침 어른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저는 이 고을 사람으로 이 집에 장가와서, 아내를 여기 두고 절에 공부하러 갔었는데, 절 중이 저의 처가를 드나들면서 제 아내와 정을 통하고 저를 죽여 돌을 매달아 절 뒤 못에 넣었습니다. 지금 그 중이 여기 와서 제 아내와 자고 있으니 원수를 갚아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무인이 곧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살피니, 여름이라 대청에서 중이 여인을

껴안고 자고 있었다. 무인은 다시 나와 활을 가지고 가서 중을 향해 화살을 쏘니, 화살이 중의 가슴을 뚫어 등으로 나왔다. 곧 중이 일어나 앓는 것을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고 여인도 함께 죽였다. 무인은 아침에 그 내력을 관가에 고했다.

관장이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가서 중과 여인의 시체를 확인한 다음, 절 뒤 연못에 가 시체를 찾으라고 명했다. 사람들이 못에 들어가 찾으니 정말 소년의 시체가 돌에 매달려 나왔는데, 전혀 상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다. 그래서 관장은 그 시체를 장례지내게 하고, 무인에게는 상을 주어 표창했다.

무인이 상경해 보니 과거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과거장에 나아가 활을 쏘니까 피곤해 화살이 바로 앞에 떨어졌다. 이 순간 꿈속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나타나 다섯 개의 화살을 갖고 말아가서 과녁에 모두 꽂아 놓으니, 무인은 곧 장원으로 급제했다.¹⁵⁾

이 이야기는 『교수잡사』, 『계서야담』, 『청야담수』에 실려 있고, 구전자료집에는 손진태(1930), 『조선민담집』¹⁶⁾과 박영만(1940), 『조선전래동화집』¹⁷⁾에 실려 있다. 『계서야담』 및 손진태(1930)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해결자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이 무사가 아니라 유생이라든지, 소년의 원혼이 원한을 풀어 달라고 신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생이 중을 죽인 후 나타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든지, 무사가 여인까지 죽인 것이 아니라 여인은 살려둔 상태에서 소년의 아버지를 불러 여인의 죄를 밝힌다든지, 소년의 원귀가 원한을 풀어준 대가로 시를 주어 무과가 아닌 문과에서 급제하게 하는 등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나, 아내가 중과 간통하여 소년을 죽이고 그 시신을 은폐하며 해결자가 중을 처단한 후 소년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커다란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노인이 간악한 하인을 엄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하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 지나가던 사람(진기경(陳耆卿))에게 신원하여 하인을 처벌하고 유골이 수습되어 정식으로 매장당하는 이야기가 『어우야담』에 전한다.¹⁸⁾

15) 『교수잡사』에 실린 이야기. 김현룡 저, 앞의 책, pp. 322-323.

16) 손진태, 『조선민담집』, 동경: 향토연구사, 1930.

17) 박영만, 『조선전래동화집』, 경성: 학예사, 1940.

18) 유몽인 저, 신의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배게, 2006, pp. 238-239.

위의 두 이야기가 가정 내에서, 즉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일어난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상 해명의 이야기라면, 공적(公的) 영역에서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어우야담』에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충청도 방어사로부터 왜적 13명을 호송받은 날 그 왜적들 중 한 사람에게 전 사한 아들 이면(李勉)이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¹⁹⁾ 이외에도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풀려고 한다기보다, 살아생전 자신이 세운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고성현(固城縣) 사람 제 목사(諸牧使)의 이야기가 『학산한언』, 『시화휘편』, 『파수록』, 『동폐낙송』, 『계산담수』 등에 전해 온다. 『한국문헌설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본래 “신이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실 기록(p. 328)”이었으나, 혼백 이야기를 개입시켜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고 한다.²⁰⁾

III. 여성 원귀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남성 원귀들의 형상: 원귀가 생전 가졌던 힘의 크기와 해원 양식의 관계

남성 원귀담을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남성들이 원귀가 된 이유가 여성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듯 여성 원귀는 원통함은 그 대부분이 성적(性的) 영역과 가정 내 음해로 형성된다. 훼절 위기에서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거나, 계모, 후처, 본부인의 계략으로 살해당한 여성들은 설상가상으로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누명을 쓰고 원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성 원귀는 신분차가 부여하는 억압, 정계의 세력 디툼에서 발생한 희생, 전사(戰死)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원귀가 된다. 앞 장(章)에서 신원형 원귀의 예로 제시하였던 제 목사(諸牧使)는 자신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통함이 되어 원귀가 되었는데, 이는 사회 진출이 가능했던 남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원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

19) 위의 책, pp. 236-237.

20) 『학산한언』에 실린 이야기. 김현룡 저, 앞의 책, p. 327.

귀가 된 원인이 사적(私的)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 원귀들에 반해 남성 원귀들의 원통함은 사적 영역에서부터 공적(公的) 영역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셈인데, 이와 같은 특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집 올 안에 가두고 공적 영역에의 진출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이야기 형성 당대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남성 원귀담에서 여성 원귀담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그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원형 원귀담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이야기들 외의 신원형 남귀담은 자신이 묻혀 있는 자리가 좋지 않으니 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들²¹⁾이 확인될 뿐이었는데, 이를 무덤자리형 이야기들은 엄밀히 말해 풀어야만 할 원한을 가진 원귀라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원통함을 가지고 나타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원귀로 판단하고 앞 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제 목사(諸牧使)의 원귀도 엄밀히 말하면 원사 원귀(冤死冤鬼)는 아니다.

원사(冤死)한 남성 원귀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징협을 드러내어 보이거나, 원한의 대상을 살상한다.²²⁾ 이는 여성 원귀들이 상사형(相思型) 원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3자를 통하는 방식으로 억울함을 푸는 것²³⁾과 대비되는 점이다. 원귀의 해원 양식이 보이는 이러한 차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해원 양식을 선택하는 원귀들의 성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진옥(2002)은 원한설화의 주인공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21) 『학산한언』 448, 『동파락송』 315 등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다.

22) 『송계만록』에 실려 있는 김부식과 정자상의 이야기가 이런 예라 할 수 있겠다. 김부식 때문에 죽음을 당한 지상은 원귀가 되어 김부식 앞에 거듭 나타났던 것으로 전한다.

23) 물론 여성 원귀 가운데에서도 직접 나타나 복수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계암 만록(鶴鷄漫錄)』에 실려 있는 심정(沈貞) 이야기, 『국당배어』에 실려 있는 득옥(得玉) 이야기는 원사(冤死)한 여성 원귀가 직접 나타나 양값음을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성공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 원귀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는 남성 원귀의 복수담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hon설화의 주인공은 대체로 사회적으로는 상층보다는 하층,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힘의 연합여부로는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나타나 권력이나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주변적 인물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이 같은 원hon주체의 사회적 위상은 원hon담론이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소외되고 거부당한 존재(소수, 주변인)의 자기 알리기, 자기 주장, 자기표현방식인 것이다.²⁴⁾

원귀 자체가 원통하게 죽음을 당한 혼령, 즉 죽음의 시점에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생전에 힘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하여 있었음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분이며 집단 등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억압적 기제로 작용하는 이분법적 성(性) 논리에서 약자의 위치에서 있던 여성은 물론이려니와, 남성 원귀들도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로 부당한 죽음을 당해 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성 원귀들의 경우에는 소수자 혹은 주변인을 대변한다는 분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남성 원귀들 가운데에는 비록 억울하게 죽기는 하였지만 그 죽음이 일방적인 권력차이에 의한 억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생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립하다가 얻은 것이거나, 시대의 어지러움에 휩쓸려 죽게 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든 김부식에게 나타나 복수한 정지상의 원귀인데, 정지상이 비록 당시 김부식의 계략에 죽기는 하였지만 그를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 장에서 자료로 제시한 유혁연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게, 함께 정계에 몸담던 대등한 사람들끼리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보는 편이 옳다. 더군다나, 남성 원귀가 성적 다수자의 위치에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억압을 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 김덕생(金德生)이 죽은 지 십여 년이 지난 뒤 어느 날 덕생의 친구가 잠자리에서 갑자기 놀라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부인이 이상하게 여겨 물자 “김덕생 장군이 흰 말에 활과 화살을 메고 나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왔기에 쏘아 죽이려 왔소.’ 하더니 조금 후 김장군이 어디를 갔다가 다시 와서는 피묻은 화살을 한 개 빼 보이면서 ‘내 이미 도둑을 쏘아 죽

24) 강진옥(2002), 앞의 논문, pp. 52-53.

였노라'고 하지 않겠어" 하였다. 부부는 서로 괴상하게 여겨 날이 밝자 김장군의 본 집으로 가 보았다. 김장군의 집에는 나이 어린 후실이 있어 그날 밤 개가를 하였는데 새 신랑이 첫날밤을 지내기도 전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죽었다는 것이었다.²⁵⁾

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귀신설화연구』의 저자는 김덕생의 귀신을 '미명원귀(未命冤鬼)'로 분류하여 새 신랑의 목숨을 빼앗은 김덕생의 행위를 개가한 아내에 대한 질투의 소산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여성이 개가하는 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수치가 될 정도로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던 그 당시의 시대상 및 양반이었던 김덕생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보면, 김덕생은 다수자의 위치에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자신의 처의 욕구를 정치하여 억누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원혼설화의 원귀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속한 존재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원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범주가 넓었던 것이다. 남성 원귀담에 출현하는 남성들 모두를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부당한 사태를 맞아 "죽어서 말하는"²⁶⁾ 존재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성 원귀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는 신원형 설화에서 남성 귀신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3자의 힘을 빌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이들 설화들이 주로 전승되었던 시대 명백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주로 신원을 통한 해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원형 원귀담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남성 귀신의 층위 가운데에서도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신원형 남성 원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무인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밤중에 15, 6세가량의 소년이 초립을 쓰고 나타나 절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²⁷⁾

25) 『청파극담(靑坡劇談)』에 실린 이야기. 안병국, 앞의 책, p. 208.

26) 두 문구 모두 강진옥(2002), 앞의 논문, pp. 58-59.

… 그러다가 노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꿈에 베옷을 입은 한 선비가 나타나 절을 하고는 …²⁸⁾

… 그날 밤 이순신이 꿈을 꾸었는데, 아들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와서 말했다.
…²⁹⁾

남성 원사원귀(冤死冤鬼) 신원형 설화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설화는 위의 세 이야기인데, 셋 모두 다 원귀의 존재가 소년 혹은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인 아이와 이미 기력이 쇠한 노인으로, 연령이 지난 한계 탓에 물리적인 약자인 것이다. 왜적과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이순신의 아들 이면은 이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으나, 소년의 몸으로 성인인 왜적들에게 둘러싸여 싸우다가 힘이 부쳐 죽고 만 점에서 역시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들의 연약함과, 원사 당시의 무력함은 이야기 내에 그들의 죽음이 지극히 간단히 처리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소년들과 노인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원수의 손에 손쉽게 죽고 마는 것이다. 아내의 간부에게 살해당한 초립 소년은 인용된 『교수잡사』본에는 그저 죽임을 당했다고만 되어 있으나, 『계서야담』에 실린 이본에는 “이 중이 동행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를 발로 차서 살해했습니다.”³⁰⁾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면은 “풀숲 속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가”³¹⁾ 그를 공격한 왜적에게 손쓰지 못하고 죽는다. 『어우야담』의 노인 신원령은 자신이 직접 원한을 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종놈이 이를 심히 원망하여 저의 말고삐를 잡고 가다가 저를 죽여 이곳에 묻었습니다. 제 아들은 상중에 있으면서 조석으로 제를 지내며 그 종놈에게 젓밥을 올리게 하는지라, 저는 두려워서 감히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³²⁾

27) 『교수잡사』에 실린 이야기. 김현룡 저, 앞의 책, pp. 322-323.

28) 유몽인, 앞의 책, pp. 238-239.

29) 위의 책, pp. 236-237.

30) 이희준 편찬, 유화수 · 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p. 466.

31) 유몽인, 앞의 책, p. 237.

32) 위의 책, p. 238.

이 노인은, 자신을 죽인 상대가 자신이 부리던 종인 데다가, 자신이 이미 귀신이 되어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 종을 두려워하여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젓밥마저도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정이 약한 원혼에게는 죽음이 부여하여 주는 ‘현실적 제약의 제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부당하게 죽인 왕을 위협하는 죽은 추남(秋南)이나, 자신들의 사정을 소홀히 다루어 무고하게 죽게 만든 관리의 목숨을 빼앗은 평민 삼부자가 보여준 ‘귀신의 힘’을 이 노인은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 원귀는 여성 원귀에 비해 다양한 힘의 충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의 충위에 따라 원귀들의 해원 양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남성 원귀들이 원수를 해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해원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제3자에게 신원함으로써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원귀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부장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원귀로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해원의 방식으로 신원을 택하고 있는 점과 합치되는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원귀들의 생전 물리적/사회적 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힘이 있었던’ 원귀들은 직접 해원을 시도하고 성공을 거두는 반면 그렇지 못했던 원귀들은 제3자에게 신원하는 형식을 택한다는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다.

IV. 만들어진 서사: 문헌설화에서 양성 원귀 신원담이 보이는 서사적 지향점의 차이

위 장(章)에서 필자는 원사원귀(冤死冤鬼)들이 보이는 다양한 해원 방식을 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그런데 위의 논리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다. 즉 위의 설명은 원귀들이 생전 사회적으로 ‘약자’였더라도 그들의 그러한 위치가 원귀 자신의 개인적, 더 중요하게는 심리적 특성

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원귀들은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I, III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어서 주변화된 원귀들은 죽음으로써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보다 지위가 위인 원수에게 복수를 시도한다. 그런데 문헌설화에서, 여귀는 직접 복수에 나서는 모습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에게 부여된 ‘약자’의 위치가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었으며, 이는 많은 남귀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귀 역시 생사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문헌설화가 아니라 구전설화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여귀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파괴적인 복수를 감행하곤 하는 것이다.³³⁾ 그렇다면 적어도 문헌설화에서의 신원담에서, 양성 원귀들이 ‘신원’이라는 독특한 해원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같다고만은 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양성 원귀담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추론이 실체를 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한다. 양성 원귀담은 그 지향점과 서사적 짜임새가 결코 같지 않은 것이다.

「아랑각전설」로 대표되는 여성 원귀 신원담에는 주지하듯 다음과 같은 공통적 화소(話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a. 새로 부임하는 부사/고을 원들마다 죽어나간다는 것, b. 이제까지 여귀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죽은 하던 기존의 관료들과는 달리 여귀의 해원을 이루어 주는 해결자는 여귀들의 사정을 듣고 그것을 해결까지 해 준다는 것, c. 해결자가 범인을 공적으로 치죄하여 그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여귀에게 씌워졌던 모함을 벗겨내는 것 등이다.

그러나 남성 원귀 신원담에는 위와 같은 공통적 화소가 없거나 약하다. 위에서 나열한 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a는 여성 원귀의 반복적인 출현을 나타낸다. 즉, 이야기의 서사는 여성 원귀 혹은 그 원귀가 출현하는 ‘기이한 마을’에 초점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해결자의 신이함이나 비범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33) ‘상사뱀형 설화’를 이러한 이야기들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사뱀형 설화에 관해서는 조현설(2003)에서 자세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원한 맷힌 여귀가 나타나는 고을’이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고, 해결자는 그에 이어 그 지방에 빌령 받은/혹은 자원한 관료로서 후생적인 전개로 등장한다. 그러나 남성 원귀담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처음부터 원귀가 아닌 해결자의 시선을 쫓고 있다. 남성 원귀들은 과거 보려 상경했다가 날이 저물어 원귀가 있는 집에 묵거나(간부에게 죽은 초립 소년 이야기), 출유(出遊)하였다가 노인의 노골(露骨) 옆을 지나가거나(『어우야담』 노인 신원령 이야기), 충청도 방어사가 생포해 보낸 왜적 가운데 아들의 원수가 있었거나(이순신과 그의 아들 이면 이야기) 한다. 세 이야기 모두 원귀와 마주치는 데에 상당한 우연히 작용하며, 여기에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끊임없이 출연하여 해원을 요구하는 여성 원귀들과 같은 집요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위에서 든 이야기들의 이본들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있기도 하다.³⁴⁾ 만일 우연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이 원귀들의 해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다.

b는 해결자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의 강조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합법적인 관료이며,³⁵⁾ 담이 세고 사리가 분명하며 정의롭다. 반면에 남성 원귀담의 해결자는 그 신분부터가 여성 원귀담의 해결자보다 한미하다. 간부에게 죽은 초립 소년 이야기의 해결자는 이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인’, ‘붓을 던지고 무예를 닦던 유생’ 등 아직 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노인 신원령의 한을 풀어 준 진기경(陳耆卿)은 이야기 내에 다만 ‘출유하던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원귀의 해원에

34) 간부에게 죽은 초립 소년 이야기는 본문에 인용한 『교수잡사』 외에도 『계서야담』 및 구전체록 자료들에서도 발견되는데, 『계서야담』과 구전체록 자료들(e.g. 손진 태(1930))에는 해결자가 소년의 신원을 듣고 간부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간부의 회통 장면을 보고 비분하여 간부를 쏘이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년의 원귀는 복수가 이루어진 다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시체를 찾아 주기를 부탁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35) ‘아랑형 설화’에 속하는 이야기들에서 해결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앙집권정부의 관료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예를 들면, 『명엽지혜(蓂葉志譜)』에 등장하는 조광원(曹光遠)은 천추사(千秋使)이고, 『서곽잡록(西郭雜錄)』의 구봉서(具鳳瑞)는 전라도 관찰사였으며, 『계서야담(溪西野譚)』에 등장하는 조현명(趙顯明)은 영남 감사이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면의 원통함을 풀어 준 이순신은 비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원한을 풀기 위한 심판자라는 위치보다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원수를 갚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성 신원 이야기에서 c.의 화소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가장 주목을 요하는 일이다. 여성 신원 이야기에서는 다른 화소가 없거나 약한 부분일지라도 범인을 공식적으로 심문하고 처벌하는 이 절차는 꼭 드러난다. 반면에 남성 신원 이야기에서는 범인의 단죄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인이 곧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살피니, 여름이라 대청에서 중이 여인을 껴안고 자고 있었다. 무인은 다시 나와 활을 가지고 가서 중을 향해 화살을 쏘니, 화살이 중의 가슴을 뚫어 등으로 나왔다. 곧 중이 일어나 앓는 것을 칼로 베어 죽이고, 그리고 여인도 함께 죽였다. 무인은 아침에 그 내력을 관가에 고했다.³⁶⁾

벽장문을 갑자기 여니까 중의 시체가 있었다. 시아버지는 단숨에 칼로 찔러 며느리를 죽였다.³⁷⁾

진기경이 이에 비로소 아들의 귀에 대고 그 사실을 말하자 상주는 작은 과실을 빙자해 그 종놈을 결박하였다. 큰 매를 치면서 심문하자 그 정상(情狀)을 낱낱이 실로했다. 이에 죽여서 사지를 가르고 아버지의 유해를 냇가에서 수습하여 전에 썼던 무덤에다 장사 지냈다.³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 원귀담에서는 원귀의 신원이 있은 후 그 사실 관계가 밝혀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원수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 진다. 원귀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원귀의 가족들도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혹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법의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로 든 이야기들에서 즉각적인 처단의 대상이 된 며느리나 종이 전통적

36) 신원형 설화의 자료로 제시하였던 이야기의 일부. 김현룡 저, 앞의 책, pp. 322-323.

37) 최인학·엄용희 편저, 『옛날이야기꾸러미 3』, 집문당, 2003, p. 148.

38) 『어우야담』, 앞의 책, p. 239.

으로 한 가문의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은 ‘사회 윤리의 이름 하에’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저들의 죄상이 위낙에 뚜렷하여 용서의 여지가 희박하였다는 점이 이들 서사에 내적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은 존재한다. 며느리나 종은 가문의 권한 아래 속해 있어 가장이 치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관북 무인이 그 자리에서 살해한 승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혹은 남성 원귀담의 서사에서 보이는 논리를 가지고 여성 원귀담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진기경(陳耆卿) 이야기에서 노인을 살해한 범인은 종이었고 그는 주인에 의해 사지가 갈렸다. 그렇다면, 「아랑각전설」에서 처녀를 살해한 관노 역시, 중앙관료인 해결자는 단칼에 처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질문은 필연적으로 양성 원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

여성 원귀 신원담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공통적 화소는 하나의 커다란 지향점을 향해 달려간다. 즉, 여성 원귀의 결백함을 사회적 차원에서 명명백 백히 밝혀내고 원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 든 공통적 화소 a, b, c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집요할 정도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a는 여성 원귀의 한이 얼마나 깊이 사무친 것이었는지를 나타내 보인다. 여성 원귀가 자신의 죽음 및 자신에게 씌워진 모함(대개는 성적으로 부정하다는 모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녀가 살아생전 품행 방정한 요조숙녀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처녀가 요조숙녀였다는 것과 그녀의 한이 크다는 것은 서로 상승작용을 수행하는데, 행실이 발랐던 처녀였기에 치욕적인 죽음이 사무친 한이 되고 또한 그녀가 그렇게도 억울해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본디 단정한 여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바르고 순결한 처녀는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집요하게 출현하고 신원을 시도한다. 여기서 ‘행실이 바르다’, ‘품행이 방정하다’라는 것은 기성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책무에 다름 아니며, 여성 원귀는 그 원통함의 ‘포즈’를 통해 자신이 기준 제도 내에서 얼마나 ‘올바르고 완벽한’ 여

성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원귀의 한을 풀어주는 해결자가 ‘비범한’ ‘중앙 정부의 관료’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사회적 질서를 대변하며, 조현설(2003)의 표현을 빌자면 “아버지의 이름”³⁹⁾이다. 즉, 그가 여성 원귀의 결백을 인정하는 것은 곧 사회 전체가 그녀의 윤리적 무결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백의 인정이 사회적 질서의 대변자 개인에게서만 머물고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 원귀가 사회 내부로 다시 편입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이 그녀의 결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인의 공개적인 치죄와 처단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화소이다. 강진옥(2002)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인물형을 통한 해결시도는 제기하는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되는데, 공적 통로를 통한 적대자에 대한 처벌 또한 사회적 공감 속에서 이루어”⁴⁰⁾지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공표된 여성 원귀의 윤리적 결백은 범인의 치죄 후 이루어지는 시체 찾기 과정에서 전혀 상하지 않은 채로 시체가 남아 있다는 데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이렇게, “‘귀녀들’은 모순된 현실을 교정하고 원억함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의 처벌과 참회의 과정을 통해 현실로 귀환한다”.⁴¹⁾ 이 과정을 조현설(2003)은 “잠시 열렸던 실재계의 단힘, 탈영토적 흐름의 재영토화”⁴²⁾라고 표현한다. 한편, 이들 이야기 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현실을 균열시키는 힘을 가졌던 것과는 상관없이, 여성 원귀들 자체는 온몸으로 기성 사회의 윤리를 철저히 체화시키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녀들은 자신의 몸에 가해진 폭력 그 자체보다도 정결하고 모범적인 자신들이 그 윤리적 세계 바깥으로 밀려나간 것에 대해 서글퍼한다.⁴³⁾ 따라서 그들의 해원도 그 초점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적대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 원귀들의 근본적인 해원은 그들의

39) 조현설(2003), 앞의 논문, p. 69.

40) 강진옥(2002), 앞의 논문, p. 55.

41) 최기숙(2006), 앞의 논문, p. 345.

42) 조현설, 앞의 논문, p. 73.

43) 자세한 논의는 정출현·조현설·이형대·박영민 저,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pp. 70-79 참조.

‘명예 회복’이다.

이렇듯 여성 원귀의 신원답이 철저하게 여성에게 부과된 윤리적 책무를 그 바탕에 깔고 있었으며, 기존 질서에 피해자 여성들을 성공적으로 ‘봉합’ 시키기 위하여 공통적 화소 a, b, c와 같은 장치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남성 원귀 신원답에 위와 같은 공통적 화소가 보이지 않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원통한 죽음을 당하는 남성들은 윤리적인 모함으로 그 죽음이 은폐되지도 않으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사회 질서에 기댈 필요도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죽음’이라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통하여야만 사회 질서에 호소하는 목소리나마 낼 수 있었던 여성 원귀들에 반해, 남성 원귀들에게는 애초에 사회 질서 자체가 자신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하여 범인 검거 자체에 큰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 심문 및 검거 과정에 다양한 장치(e.g. 붉은 깃발, 백(白)자가 세 개 쓰인 노란 종이, 범인의 머리 위에 앉는 나비 등)를 설치하여 해원의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 원귀 신원답과는 달리, 남성 원귀 신원답은 신원령들이 직접적으로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고 해결자는 그를 즉각적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남성 원귀의 해결자들이 여성 원귀의 해결자와는 달리 별다른 관직이 없거나 혹은 최소한 관직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원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남성 원귀들의 해원이 여성 원귀들의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절실했다는 것이, 서사의 초점이 신원령(伸冤靈)이 아니라 해결자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의 설명이 된다. 이렇게 서사의 초점이 옮겨가면서 때때로 남성 원귀 신원답은 해결자 중심의 모험담 비슷하게까지 발전되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에서 해결자는 공명정대한 심판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호협한 성질을 지닌 호걸과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그들은 직접 활을 쏘아 악인을 처단하고 선행을 한 대가로 현달하며 심지어는 〈초립 소년 원귀〉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는 죽은 소년의 아내를 보고는 정욕을 품고 그 뒤를 밟기까지 하는 것이다.⁴⁴⁾

즉, 여성 신원령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해원이 ‘명예 회복’ 및 ‘기존 질 서로의 재편입’인 데 반해, 남성 신원령들의 해원은 ‘복수’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양성 원귀의 신원답이 근본적인 지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원귀이자 신원령이기 이전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위치의 차이와 세상에 대한 대응 방식 차이가 그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또한, 남성 신원령들이 ‘적대자의 처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직접 해원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남성 원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해원을 수행하는 남성 원귀들은, 주변인들이 자신의 사정을 캐거나 해원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원한의 사정을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잘 지내던 적대자를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게 하거나, 태어나는 자손을 족족 죽이거나, 병에 걸리게 하여 죽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다. 원한 풀기의 과정에 높은 비율로 대화와 위로가 첨가되는 여성 원귀 이야기와,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기보다는 자신의 적대자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원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 원귀 이야기의 서사적 차이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근본적으로 양성의 성차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V. 결론

원귀 이야기는 한국 문화 내에서 독특한 문학적 위상을 가지고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신화로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층위에서 끊임없이 형성, 전승 및 재창조되고 있다. 이렇듯 비중 있는 문화현상으로 존재하는 원귀 이야기는 대중문화와 학계 양쪽 모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 관심의 대부분이 여성 원귀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죽은 자로 하여금 명계로 가지 못하

44) 『계서야담』 및 구전 채록 자료들에 실린 이야기들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고 귀신이 되게 한 사건에 대하여 귀신 자신이 원통함 혹은 분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원(解冤)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신원, 보복, 암시 등)을 보이는' 귀신을 원귀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남성 원귀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본고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설화자료에서 보이는 남성 원귀의 모습을 크게 직접 해원형인 행동형(行動型), 간접 해원형인 신원형(伸冤型)으로 나누어 유형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된 남성 원귀의 형상을 여성 원귀의 형상과 비교·대조함으로써 양자간에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남성 원귀는 여성 원귀에 비해 직접 해원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으며, 여성 원귀 이야기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원담이 남성 원귀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주변적인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원귀들의 해원 방식은 그들이 생전 가졌던 사회적/물리적 힘의 크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원귀의 신원담과 남성 원귀의 신원담의 성격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원귀의 '명예 회복' 및 '기존 질서로의 재편입'에 기본적인 지향을 두는 여성 원귀의 신원담에 비해 남성 원귀의 신원담은 '적대자의 처단', 즉 '복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에게 부과된 윤리적 책무와 억압적 기제 하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획득하려면 제도권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체화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었던 여성과, 태생적으로 기득권과 질서의 편에서 있어 굳이 새삼스레 그 질서를 다시 추구할 필요가 없었던 남성의 사회문화적 위치가 녹아 있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 왔던 것과 같이, 민중에 의해 창작되고 구전되어 온 구비문학은 그 세계를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초자연적인 힘, 죄, 처벌, 원한, 민속적 종교관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이치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귀신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합리함이나 모순점에 대한 민중의 의식적, 무의식적 인식 및 그에 대한 대항적 담론까지도 드러내어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신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에까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귀신 이야기가 제공하는 이러한 통찰을 적

실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선이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범주 전체를 총체적인 동시에 촘촘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남성 귀신 이야기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귀신 이야기’ 전체, 그리고 ‘여성 귀신 이야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남성 귀신과 여성 귀신을 포괄하여 그 특성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성별을 초월하여 ‘귀신’이 갖는 의미와, 그 안에서의 성차가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수많은 남성 귀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도 현재 일반 대중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여성 귀신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전승 및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새로운 과제를 제공한다. 여성 귀신 이야기는 어떠한 점에서 남성 귀신 이야기보다 더 매력적인가? 여성 귀신 이야기가 학계 및 미디어의 조명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좀 더 각광받게 된 것인가, 아니면 양성 귀신 이야기들에 서사 내적인 면에서, 혹은 사회담론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래되어 오는 다양한 유형의 원귀담이 과거 및 현대의 향유 주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부조리함을 토양으로 형성된 전통적 귀신 이야기가 현대의 맥락에서 특정한 선호도를 가지고 소비되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설화가 만들어진 시대 당시의 모순이 현재와 어떻게 소통하며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김소영, 「근대성과 여자 귀신」,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재용, 「귀신 이야기의 기호학」,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김종주, 「귀신의 정신분석 — 라깡 정신분석학적 입장 —」,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박성규, 「주자 귀신론에서 ‘괴이현상(怪)’의 문제」, 『철학연구』 제61집, 철학연구회, 2003.
- 백문임, 「미지와의 조우 — ‘아랑형(阿郎型)’ 여귀(女鬼) 영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17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구조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문제연구소, 1996.
-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본 원귀 —』, 도서출판 규장각, 1995.
- 유몽인 저,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역, 『어우야담』, 돌배게, 2006.
-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 제34집, 민족문화사학회, 2007.
- 이희준 편찬, 유화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 임방 저, 정환국 역, 『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정출현·조현설·이형대·박영민 저,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 단편 서사류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최인학·엄용희 편저, 『옛날이야기꾸러미 3』, 집문당, 2003.
-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학적 위치」, 『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